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Statistics Development in Italy

Joo Hwan Kim¹⁾

Abstract

Recently Korean statistician have more chance to work with other researchers in other countries at international level. Especially the 53rd Scientie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ISI) will be held in Seoul, Rep. of Korea at Aug 22-29, 2001. The fields of Statistics in Korea have been affected a lot from American Statistical Society.

In this research communic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a short history of the Italian statistical society and their major research topics and outputs. The contents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Italian statistician, and it can be a conner-stone to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tatistician and Italian statistician.

Keywords : Italian Statistics Society(SIS), ISTAT, ISI

1. 서론

국내에서도 통계학자들의 국제적 교류가 많아지고 특히 2001년 8월 말에는 서울에서 제53차 국제통계기구(ISI) 과학자모임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통계학분야는 특히 미국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저자는 2001년 3월부터 이탈리아 피렌체대학 통계학과에 방문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를 수행하던 중 이탈리아에서는 통계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어떤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되었을까? 하는 통계학자로서의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겼다. 이탈리아 통계학사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좋은 문헌을 발견하여 이를 번역 및 정리요약하여 국내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로된 논문은 짧은 이탈리아 실력이지만 개념을 잡고 현지 유학생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으며, 인터넷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영어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통계학회 발전사를 많이 참조하였다.

본문의 내용에서 소개되지만 이탈리아 통계학사는 한국의 통계학사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다. 또한 통계학자들의 모임인 이탈리아 통계학회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정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하였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정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이탈리아 통계학의 발전과 통계학자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본 연구교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Science, Dongguk University. Kyongju, 780-714, Korea
E-mail : jhk@mail.dongguk.ac.kr

아니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간단히 소개하여 논문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이탈리아 중앙통계기구(ISTAT)의 자료를 보면 2000년 현재 이탈리아 인구는 약 57,680,000 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2001년 4월 30일 현재 제53차 ISI 과학자모임의 외국인 등록자 명단을 보면 총 328명 중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25명이나 참석을 한다. 다른 국가의 참여도를 보면 중국 10명, 프랑스 4명, 독일 12명, 일본 56명, 미국 88명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까지의 거리나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의 참여도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통계학회가 그동안 지향했던 국제수준의 통계학회 모임 참여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통계학 연구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본 내용이 이탈리아 통계학자 및 통계학회를 좀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2장에서는 19세기 초기부터 1939년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출발까지의 이탈리아 통계학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이탈리아 통계학회가 출범한 이후 그들이 추구하였던 연구방향이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다.

2. 이탈리아 통계학회를 위한 서막

2.1 이탈리아 공공통계의 시작

1830년경 영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통계학회(national societies of statistics)가 설립되었다. 이들 국가의 선례를 통계적으로 진보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뒤따랐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아니었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왕국은 1807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통계사무소를 설치한 주(지역) 이었고 1826년에 이탈리아반도 주중 한곳인 토스카니 대공국(the Grand Duchy of Tuscany)에 지리통계 및 자연사 토스카나 통계학회(societa Toscana di Geografia Statistica di Storia Naturale)가 만들어졌지만, 통계사무소나 학회 모두 오래가지 못하였다(Parenti, 1969).

프랑스에서 1800년에 루시앙 보나파르트(Lucien Bonaparte)가 통계사무소를 설립한 후 몇 년 뒤 이탈리아 통계사무소는 통계학자이며 철학자인 멜키오레 조이아(Melchiorre Gioia)의 지도 감독하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1828), 벨지움(1831), 대영제국(1832), 그리고 덴마크(1833)보다 전이었지만 나폴레옹시대의 행운이 사라지면서 곧 사라졌다. 사실 이탈리아의 재 제정된 대부분의 주정부는 통계학이 그들의 행정에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설치만 하였다.

만일 토스카니 대공국 정부의 간섭만 없었다면, 이탈리아의 통계학회는 1833년에 설립된 맨체스터통계학회(Manchester Statistical Society)나 1834년의 왕립통계학회(Royal Statistical Society), 그리고 1839년의 미국통계학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다.

1832년에 시칠리아(Sicilia)의 파레르모(Palermo)에 중앙통계사무소(the Central Office of Statistics)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1836년에 만들어진 시칠리아 통계저널(Giornale di Statistica di Sicilia : Journal of Statistics of Sicily)의 기원이 되었다. 1836년에 토리노(Torino)에서 통계중앙위원회가 설립되고, 1841년에 사르데냐(Sardegna)에 비슷한 것이 설립되었다. 통계사무소는 1848년에 토스카니, 1851년에 나폴리, 그리고 1858년에 로마에 설립되었다.

결국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의 탄생에 따라 통계중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통계국(Divisione di

Statistica General)이 탄생되고, 후에 통계최고회의(Consiglio Superiore di Statistica)로 불리웠으며, 1926년까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통계정보가 점차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2.2 이탈리아의 대학과 최초의 과학학회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대학은 문학과 과학원리 그리고 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자들의 모임이었다. 학문은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수 있는 실용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탈리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삶과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혁명 이후 거의 모두가 사라졌다. 오직 강하고 중요한 학문만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들도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비슷한 것끼리는 결합하고 새로운 기구로 변환하고 실험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고고학을 배웠다. 명칭에 있어서도 과학대학, 문학예술대학으로 불리웠으며 대학이 소재하는 도시나 주를 이름에 포함하였다. 혁명전에 존재하였던 대학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이탈리아 영토에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있었으며, 새로운 대학조차도 현실세계의 필요한 학문을 계속 회피하였다. 따라서 이들 학문은 독립되고 통일된 하나의 이탈리아를 형성하거나, 과학과 문학의 진보에도 거의 공헌하지 못하였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이탈리아 과학자협회(the Congresses for Italian Scientists)의 성과보다 못하였다. 이러한 의회는 이탈리아인의 정신적 발전에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과학의 진보에도 공헌하였다. 예를 들면, 제6차 의회에 유아학교의 보조금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저축은행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862년 시에나(Siena) 의회에서 정치경제 및 통계를 위한 분과가 만들어졌다. 유아학교 및 저축은행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쥘세페 사키(Giuseppe Sacchi)가 이 분과의 의장을 맡았었고, 1886년에 국제통계기구(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ISI)의 명예회원으로 임명되었다. ISI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제과학자협회 중 하나이며 1885년에 설립되었다. 체사레 코렌티(Cesare Correnti)가 1875년 팔레르모(Palermo)에서 열린 마지막 의회에서 의장을 맡았으며 10년후 ISI의 첫번째 정식회원이 되었다.

나폴리 의회에서는 이탈리아 지리학회에 대한 설립안이 나왔으나 다른 과학협회는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훨씬 늦은 19세기 말에나 나타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학회가 만들어졌다. 1872년에 이탈리아 심리학회(Societa Freniatria Italiana)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이탈리아 정신의학학회(Societa Italiana di Psichiatria)가 되었다. 1888년에 이탈리아 식물학회(Societa Botanica Italiana), 1890년에 이탈리아 동물협회(Unione Zoologica Italiana), 그리고 1907년 신경병학회(Societa Italiana di Neurologia)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회들은 그들의 관심분야가 과학의 전반적인 범위가 아닌 어떤 특정한 과학분야라는 점에서 대학과는 달랐다. 이들은 지역적이 아닌 전국적인 기구이었으며, 특정한 영역에서 모든 과학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다. 이들은 대학보다 더 정치적이었다. 지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기구의 확산과 의회의 기구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나타나는 이탈리아 통계학회(Societa Italiana di Statistica)와 같이 모든 과학협회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탈리아에서의 과학협회의 생성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1870년까지 국토는 많은 작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많은 과학 저널들이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전 국가적인 과학협회의 필요성을 느

까지 못하였다. 더불어 이탈리아 과학자 의회는 명성만큼 다양한 원리를 위한 더 기술적인 협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을 위한 의회의 목표는 과학의 특성을 통일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873년에 만들어진 과학진보를 위한 이탈리아협회(Societa Italiana per il Progresso delle Scienze)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협회는 1906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자연과학자 의회로 재구성 될 때까지 거의 활동이 없었다. 1907년에 의장으로 선출된 비토 볼테라(Vito Volterra)에 의해 의회기구는 재도약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비록 이 기구의 목표가 과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었지만, 협회는 세 분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분과는 물리, 수학, 자연과학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분과는 생물과학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분과는 윤리도덕과학에 대한 것이었다. 각 분과는 더 세분화되어 부분과로 나누어졌다. 경제 및 사회과학을 위한 부분과의 의장은 1909년부터 1939년까지 다음과 같은 통계학자들이 다양한 재임기간동안 역임하였다: 로돌포 베니니(Rodolfo Benini), 루이지 보디오(Luigi Bodio), 기노 발렌티(Ghino Valenti), 코라도 지니(Corrado Gini), 조지아 모르타라(Giorgia Mortara), 루이지 아모로소(Luigi Amoroso). 첫번째 분과인 물리, 수학, 자연과학 분과에서 보험수학, 수리통계 및 확률 부분과의 의장은 30년 동안 프란체스코 파올로 칸텔리(Francesco Paolo Cantelli), 파올로 메돌라기(Paolo Medolaghi) 그리고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역임하였다. 이러한 과학자들이 발전에 공헌하였고 결국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탄생을 가져온다.

이탈리아 과학자를 위한 의회와 대학 및 과학진보를 위한 이탈리아 협회가 존재하여 그들 분야의 문제점들을 논의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특히 통계학자들에게 과학협회의 필요성을 덜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국제통계기구(ISI)나 인구학국제협회 안에서 인구학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하던 것이, 그 당시 적어도 ISI가 통계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탈리아 통계학자를 위한 학회설립의 필요성이 덜 하였다. 따라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이탈리아에서 전국적인 통계과학학회의 설립이 늦어진 이유로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특별히 갖고 있던 특권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3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던 학술지들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들을 출판하는 기회에 대해서도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다. ISI의 회원들과 다른 선택된 통계학자들은 ISI의 세션에서 그들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고, ISI는 Bulletin으로 출판하였다. 파도바(Padova), 칼리아리(Cagliari), 팔레르모(Palermo) 등과 같은 여러 이탈리아 대학의 논문집에서 통계학자들의 논문을 받았다.

1878년에 통계논문집 “Annali di Statistica”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논문집에는 여러 가지 통계서비스에서 연구된 위원회의 프로시딩과 통계최고위원 및 위원회의 프로시딩이 들어있었다. 또한 이 논문집은 통계조사, 현재와 과거의 인구학적 현상, 과거와 현재의 경제통계, 국제수준에서의 데이터 비교 등에 대한 개인 학자들의 논문을 받아들였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계학의 사용으로 많은 종류의 학문분야의 저널에 통계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 천문학, 유전학, 우생학, 정치경제, 물리, 화학, 재정학, 역사학, 법학, 약학, 인류학, 공학, 보험과학과 인구학, 심리학, 병리학, 정신의학, 순수수학, 일반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농업경제학 등. 경제학 논문집 중에서 통계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는 “Rivista delle Societa Commerciali” (이 논문집은 나중에 “Rivista di Politica Economica” 가 된다), “the

Biblioteca dell'Economista”, “Gionale degli Economisti” 등이 있다.

통계학의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논문집에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 방법의 진보에 방해가 되었다. 지니(Gini)(1920)는 “통계학자들의 연구결과가 통계분야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 통계학의 다른 분야에서 이미 만들어진 방법을 다시 만드는 명백한 에너지 낭비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1920년에 지니(Gini)는 통계학 논문만을 위한 “Metron” 이라는 저널을 만든다.

지니(Gini)는 40여년 동안 Metron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1965년 사망하기 전까지 편집인 이었다. 그가 저널을 만들 것은 그의 연구 뒤에 숨어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첫번째 단계였다. 즉 이것은 통계학자가 유도해 낸 하나의 통계적 방법은 모든 과학을 위한 통계방법 및 절차로서 생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가 연구하는 여러 분야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그의 통일개념의 실현으로 1926년에 중앙통계기구(Istituto Centrale di Statistica)의 설립, 1927년 로마대학교에서의 통계대학(Scuola di Statistica)의 설립, 그리고 1935-36년도에 동대학에서 통계인구보험과학과(Facolta' di Scienze Statistiche Demografiche ed Attuariali)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Metron은 명성이 높은 저널이다. 현재 볼륨 50까지 출판되었고 통계분야의 국제적인 출판에서 저명한 저널로 자리잡고 있다.

1929년도에 시작된 “경제바로미터(Barometro Economico)” 저널은 1933년에 “이탈리안 경제바로미터(Barometro Economico Italiano)”로 명칭을 바꾸지만 그 당시의 경제상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바로미터는 지표(indicator) 또는 지수(index)로 볼수 있다. 이 저널은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밖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일련의 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었다. 정보는 종합되었고 데이터는 소위 바로미터를 형성하였다.

경제바로미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출판을 중지했지만 1938년에 이미 불가피한 저널의 사망을 예감하였다. 경제바로미터는 이탈리아 통계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과학적인 논문 출판은 물론 국제통계기구를 지원하는 논쟁 그리고 통계를 교육하기 위한 현대적 방법 등에 공헌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탈리아통계학회(Italian Statistical Society)의 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34년 6월에 역시 지니(Gini)를 편집장으로 하여 저널 “Genus”가 창간되었다. “Genus”의 출간으로 인구통계학, 유전학자 그리고 인구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학생들이 그들만의 저널을 갖게 되었으며, 그 후 페데리치(N. Federici) 덕분에 오늘날까지 “Genus”는 국제수준의 인구통계학 저널의 하나가 되었다.

2.4 이탈리아 통계서비스의 재구성

보디오(L. Bodio)의 연구로 이탈리아 정부통계의 급속한 발전 후에 통계 서비스는 오랜기간동안 위기를 맞이한다. 아마도 이 위기는 파시정부를 찬양 하기위한 파시즘(Fascism)하의 출판하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 중앙통계기구(ISTAT-Instuto Centrale di Statistica)의 초대 회장이었던 지니(Gini)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ISTAT는 이탈리아 국가통계기구로 1926년에 설립되었다.

“실제로 그 당시 정부관료 계급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통계서비스는 다른 부처보다 더도 덜도 아니게 생각되었다. 그 당시에 여러 주 정부는 통계조사로부터 관측되고 일반화 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확고한 다른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미 불충분한 통계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삭감되고, 숙달된 통계 전문가들은 다른

부서로 이전되어 통계서비스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1923년에는 중앙통계사무소에 정규직원은 몇 명 안되었고 그들의 활동도 편집이나 오래된 기준에 근거한 작업, 그리고 통상적인 인구통계에 한정되었다. 이들 통계는 통계연보에 자료가 빠지거나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출판되었다. 1920년도 마지막에 출간된 통계연감에는 1917년과 1918년의 자료가 나타나 있다“.

파시스트 정부는 이탈리아 통계서비스를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부 자체를 위한 정부서비스로 재 구성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거기에 더한 것은 집중형 통계서비스(centralized statistical service)에 대한 것이었다. 만일 하나의 기구로 집중된다면 많은 기구들이 있을 때보다 정보를 관리하고 조작하는데 훨씬 간단했기 때문이다.

파시스트 정부의 이러한 관심은 그들이 실권을 쥔 다음 해인 1923년에 즉시 나타났다. 통계서비스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법령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계서비스가 갖고있던 중요한 기능 때문에 그들이 원하던 열매는 맺어지질 않았다. 따라서 파시스트 정부는 불가피하게 완전히 자율적이고 정부의 장에 직속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였다.

1926년 3월 25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투표에 부쳤고 1926년 7월에 이탈리아왕국의 중앙통계기구(Istituto Centrale di Statistica del Regno d'Italia)의 존재를 법으로 선포하였다.

이탈리아 중앙통계기구의 창설과 1929년에 이은 법개정으로 대중을 위한 통계생산의 중요한 기구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2.5 전국적인 통계학회 창설을 위한 제안서

새로운 기구조성을 위한 통계조사가 있었고, 통계학의 수요증가에 대한 예측과 많은 기존 및 새로운 이론과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이론의 중요 관심사를 토론할 수 있는 통계학자들을 위한 기구의 조성이 최첨단 과제였다.

통계학회 창설의 필요성은 지니(Gini)가 무솔리니(Mussolini)에 의해 ISTAT의 회장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서 나타났다. 이는 1932년 2월 7일의 일이었으며, 중앙통계기구의 “경제바로메터(Barometro Economico)”가 출간된지 30년이 안된 때였다. 지니(Gini)가 이탈리아 중앙통계기구의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이상적인 동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최고통계위원회에서 제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솔리니와 지니 두 사람 간의 충돌에 기인한다. 각각은 서로 그들의 권력을 허용하기에는 불가능하였다. 지니가 그의 컨트롤을 잃자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학회창설의 기회가 생겼다.

1933년 여름 경제바로메터지에 파도바(Padova) 대학교 통계대학의 학장이며 통계학과 교수인 가에타노 삐에트라(Gaetano Pietra)에 의해 이탈리아 통계학회 창설을 위한 첫번째 제안이 실렸다. 삐에트라(Pietra)의 아이디어는 ISI는 개인들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국가간 통계학회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삐에트라(Pietra)의 제안은 받아 드러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다른 국제과학단체들은 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삐에트라가 이탈리아 통계학회 창설 필요성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사라지는듯 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산실인 이탈리아 경제바로메터(Barometro Economico Italiano)는 그 논쟁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3년후 Review지에(1935년 5월호: No. 71) “이탈리아 통계학회 설립을 위하여(Per una Societa Italiana di Statistica)”라는 글을 구리엘모 딸리아카르네(Guglielmo Tagliacarne)가 기고 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통계학회 설립의 초석이 되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헤이그의 국제통계기구에서 분기별로 출판되는 저널은 때때로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 있는 많은 통계학회의 프로시딩을 실고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탈리아에는 통계학자들의 학회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대학과 여러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회사, 그리고 모든 영역의 교육받은 사람들, 의학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고로 교육받고 통계연구에 정렬을 바치는 것으로 안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연구주체의 부족도 없다.

통계학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으며, 실용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한히 많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기업에서의 수요는 엄청나고 통계의 필요성은 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회나 수학회 등과 같이 이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을 모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 학회를 구성한다.

- 공공부문에서 통계학의 유용성 증가
- 특정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교한 자료와 연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통계기구 제공
- 통계학자와 관련된 주제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그들 간의 공동 연구를 증대
- 새로운 연구를 안내하고, 특히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동일한 주제에 노력을 집중하여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
- 젊은 사람들의 통계학에 대한 정렬과 연구를 활성화
- 개인 학자들이 혼자서는 어려운 학문분야를 여러 사람들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계획이나 모노그래프(monograph)을 준비하고 구성“

2.6 이탈리아 경제바로미터에서의 논쟁

탈리아카르네(G. Tagliacarne)가 이탈리아 경제바로미터(Barometro Economico Italiano)에서 시작한 토론에 88명이 자발적으로 또는 편집장의 초대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Riccardo, Roberto Bachi, Marcello Boldrini, Francesco Paolo Cantelli, Bruno De Finetti, Corrado Gini, Libero Lenti, Livio Livi, J.W. Nixon, Gaetano Pietra, Felice Vinci 등 이었다. 이들의 논쟁은 1935년 6월과 11월에(No. 72-73) “이탈리아통계학회의 설립에 대하여(For the Setting up of an Italian Statistical Society)”라는 제목하에 게재 되었으며, 1936년 3월호(No. 77)에 논쟁의 결과를 정리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2.7 인구연구를 위한 자문위원회 및 인구통계학 및 통계학회

이탈리아 경제바로미터에서의 논쟁이 끝난 후 약 1년 후인 1937년 2월에 레비오 리비(Livio Livi)는 피렌체에 인구연구를 위한 자문위원회(Comitato di consulenza per gli studi sulla popolazione)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리비(Livi)가 디렉터로 있는 피렌체대학 통계학교의 노력의 성과였다. 위원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구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곧 이탈리아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구문제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내의 이탈리아 대표로 받아들여졌다.

1938년 1월 로마에서 첫번째 위원회 모임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위상이 입증되었다. 1938년 4월에 피렌체에서 그리고 동년 11월에 볼로냐에서 열린 모임에서 위원회를 좀더 광의의 학회인 인구학 및 통계학을 위한 이탈리아 학회(Societa Italiana di Demografia e Statistic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학회의 목표는 이탈리아 인구의 질적 및 양적 진행에 대한 통계학 및 인

구학 연구의 추구이었다.

2.8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설립

이탈리아통계학회(The Societa Italiana di Statistica : SIS)는 추진위원회에 의해 1939년 1월 15일에 로마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인구 및 통계협회(SIDS)의 설립에 자극받았다. 사실 SIDS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느껴졌으며 SIDS의 회원이 아닌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SIDS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학회구성의 필요성이 있었다. 사실 SIDS는 인구통계학분야로 그들 자신의 영역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통계학 지향의 학회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었으며, 사실 42명의 이탈리아통계학회 추진위원들이 이를 학회의 설립취지로 한 것이다. 즉 이탈리아 통계학회는 통계이론분야, 특히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s)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방법(method)이라는 단어는 먼저 도구적 기능으로 이해 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지니(Gini)는 통계적방법이란 순수 추상과학이 아닌 현실과 연관되어 있고 응용분야를 갖는 방법들의 모음으로 생각하였다.

이탈리아통계학회 창립추진위원들의 명부를 보면 코라도 지니(Corrado Gini)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의 이름이 창립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가 학회창립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통계학자들 사이에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추측컨데, 그는 제작자처럼 무대에는 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일을 기획하고 추진했으며, 1939년 5월에 진지하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탈리아통계학회의 초기 회장은 빼에트라(Pietra)가 맡았으나 나중에 사퇴하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1941년에 지니(Gini)에게 회장직을 넘긴다.

학회가 구성된 직후 학회는 정부의 관심을 받고 빠르게 정상적인 학회의 기능을 하였다. 사실 1939년 7월 13일 이탈리아 왕정은 이탈리아통계학회를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이의 존립을 법령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과학세계와 특히 통계분야 그리고 인구통계학 분야에서의 이탈리아통계학회의 과학 및 문화적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회에 의해서 추진된 초기의 연구들은 국내 및 국제분야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었다.

3.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역사

3.1 시작 (1939년-1945년)

빼에트라(G. Pietra)가 이끄는 새로운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총회원이 1939년 5월 4일 로마에서 처음으로 모였다. 코라도 지니(Corrado Gini)와 프란체스코 파올로 칸텔리(Francesco Paolo Cantelli)가 이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다. 회의중 빼에트라(G. Pietra)회장은 10월에 피사(Pisa)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갖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모임은 1839년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피사에서 열렸던 첫번째 이탈리아 과학자 의회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9년 10월 9일 피사대학교의 대강당에서 제1회 이탈리아통계학회 과학자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지니(Gini)는 “통계학의 위험(The dangers of Statistics)”이라는 주제로 개회연설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2회 이탈리아통계학회(SIS) 과학자모임은 1940년 6월 로마에서 열렸다. 회장직은 아직 빼에뜨

라(Pietra)로 되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예회원인 지니(Gini)가 회장을 맡고, 볼드리니(M. Boldrini)가 부회장을 맡았다. 이는 지니(Gini)가 학회안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기 위한 서막이었다.

사실 1941년 4월에 삐에트라(Pietra)는 교육부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지니(Gini) 교수를 회장으로 추천하였다. 제3회 SIS 모임이 1941년 6월 2일에 열렸다. 칸텔리(Cantelli)도 모임에 참여하여 사망률을 기본으로 한 사망표의 작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지니(Gini)의 논문 “임의성의 개념(The concept of randomness)”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니(Gini)는 1945년까지 학회의 회장을 맡았으며, 4번 더 학회모임이 있었다. 열심히 하였으나 모든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의 호응을 얻는데는 실패하였다.

3.2 정체의 회복 (1945년-1964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에 지니(Gini)는 그의 모든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교수에게 넘겨 주어야만 했다. 학회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유로는 지니(Gini)가 파시스트(Fascist)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교수는 교육부로부터 학회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 및 제한을 할 수 있는 이탈리아통계학회(SIS)의 비상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3년동안 학회의 활동은 축소되었고 학회의 연구 및 존재가 위협받았다.

1948년 11월에 갈바니(Galvani)는 비상위원회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고 새로운 학회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결과적으로 1949년 1월 11일에 로마의 중앙사무소에서 위원회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고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또 다시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49년 1월 28일 교육부는 코라도 지니(Corrado Gini)와 가에타노 삐에트라(Gaetano Pietra)를 각각 SIS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새로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1949년 2월 3일 제8회 이탈리아 통계학회 과학자 모임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949년 6월 1일 모임이 개최되었으며, 모임의 개최연설은 지니(Gini)가 “순수통계학(Pure statistics)”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니(Gini)도 학회기간 중 “The distribution of statures is hypernormal”이란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니(Gini)가 1965년 사망하기 전까지 SIS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학회회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학회의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모임의 특성은 응용분야는 물론 순수 방법론까지 공존하였다. 이는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지니(Gini)의 놀랄만한 회장으로서의 자질이였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연구방향이 비판을 받던 격려를 받던 간에 지니(Gini)는 과학연구가 택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지니(Gini)의 SIS 과학적 발전을 위한 공헌은 팔목할만 하다. 그는 그의 많은 연구업적과 24개의 과학모임 및 연구위원회를 SIS에 헌납하였다. 위원회로서는 the Committee for Actuarial Statistics, the Committee for Economic Statistics, the Committee for Corporate Statistics, the Committee for the history and Prices, the Committee for the Study of Autarchy, the Committee for Graphical Representations, the Committee for the Problem of Standardisation, the Committee for Income and Wealth, the Committee for a Statistical glossary 등이 만들어졌다. 통계학회의 과학모임에서 발표된 그의 많은 논문들은 통계학의 역사에 이정표가 되었다. 지니(Gini)의 업적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점은 응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론의 발전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러한 확신은 지니(Gini)가 과학모임에서 하나는 원론적인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응용인 논문을 가끔

발표하곤 했다.

3.3 안정 및 발전 (1965년-1980년)

3.3.1 1965년-1966년

1965년 3월 13일 지니(Gini)의 사망으로 SIS의 회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1966년 6월 8일 정회원들이 로마대학교의 인구통계학 및 보험통계학과 강당에 모여 볼로냐대학 통계학과의 파올로 포르투나티(Paolo Fortunati)교수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학회의 영역을 가능한 한 확장하려 하였고 모든 회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였다. 새로운 회원들을 확보하고 이탈리아에서 통계학을 다루는 다른 과학학회와 접촉하고 SIS가 전국적인 학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모든 작업들은 국제통계기구(ISI)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포르투나티(Fortunati)회장의 노력은 곧 결과로 나타났다. 그의 회장직 아래서 열린 제25회 모임은 282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이는 전모임보다 두배 이상인 인원이었다. 또한 논문 발표수도 전년도는 6편밖에 없었으나 제25회 모임에서는 1300페이지에 해당하는 49편이 발표되었다.

포르투나티(Fortunati)에 의해 SIS에 도입된 것으로는 개회연설을 없애고 대신 한명 또는 다수가 일반 주제를 다루는 강연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었다. 많은 관심과 토론이 있었던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The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1971 censuses(1969, 피렌체), the labour-force and the professional and economic-social stratification of the population(1978, 볼로냐), the statistical models and the divisions of the economic planning and accounting(1978, 볼로냐), the function of statistics in regional and sub-regional economic policy(1980, 트렌토), the social indicators(1972, 팔레르모).

1969년에는 피렌체에서 "The present state and direction of statistics" 이라는 주제로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토론이 있었으며, 1975년 파도바에서 "Today's function of statistics with reference to the moment of research, didactics and professional work"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새로운 문제의 연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세 번 열렸다. SIS가 구성한 첫번째 라운드 테이블 회의는 통계교육(the teaching of statistics; 1970, 프라스카티)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번째는 the arrangement and organization of the Italian statistical service(1971, 볼로냐) 이며, 세번째로는 the labour force market in the South of Italy(1979, 바리)였다.

SIS에 의해 수행된 연구과제는 많은 통계학자들의 연구방향을 제시했으며, 5개의 연구위원회는 공공통계서비스기관, 생산기술분야에서의 통계분석, 대학이전학교 교육에서의 통계의 역할, 통계적 추론의 문제점, 다중통계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였다.

국제관계에서 국제통계기구(ISI)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르투나티(Fortunati)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하였다. 이탈리아통계학회(SIS)는 1967년 ISI에 가입했다.

포르투나티(Fortunati)가 회장으로 재임하는동안 학회는 급속한 성장과 양적인 결실을 맺을수 있었으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학회의 운영문제 라든가 특히 학회컨퍼런스를 위한 자금확보 등의 문제가 있었다. 포르투나티(Fortunati) 회장은 1980년 1월27일 사망한다.

3.3.2 1980년-1988년

1980년 4월 11일 트렌토에서 열린 이탈리아통계학회 모임에서 로마대학교 통계학과의 주세페 레티(Giuseppe Leti) 교수가 새로운 SIS의 회장으로 선출된다.

새로운 회장으로서는 직면한 첫번째 문제들은 행정적이나 기구적인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구 내부의 조직을 강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적절한 구조의 개편이 필요했다.

SIS의 내부적 강화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국내나 국제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었다. 외부 진출에 대한 요구로 필요한 절차가 SIS에 포함되고 ISTAT, NCR, 이탈리아인 수학자 연합, 이탈리아 경제협회, 인구통계 및 통계학 학회의 컨퍼런스나 모임에 SIS 대표단을 참여 시켰다. 같은 시기에 SIS는 이탈리아과학자협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COASSI)의 회원이 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접촉을 통해 SIS의 내부적 성숙과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학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을 국제기구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통계학과 인구통계학의 국제과학기구에 이탈리아회원 그룹이 만들어지고, 국제수준에서 통계학, 인구통계학, 계획 공동작업 등에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그룹 안에서 국제통계기구(ISI)와의 접촉과 공동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통계학회의 회원들이 국제통계기구에서 실질적인 일이나 연구를 하도록 격려했다.

더욱이 SIS에 의해 추진된 공동작업의 결과로서 인구통계 및 통계학 분야에서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의 경험 들을 모은 책을 편집하였다. 이 책은 국제수준에서 배포 및 활용을 위해서 불어로 편집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통계적 방법의 기여(Italian contributions to the methodology of statistics)” 라는 책이 나데오(A. Naddeo)에 의해 편집되었다. 거의 모든 이탈리아 통계학자들이 공동 작업한 이 책은 동경에서 열린 제46회 국제통계기구 모임에 제출되었으며, 많은 외국의 통계학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회의 노력 및 성과에 찬사와 감사를 표명했다.

외국과의 집중적인 공동연구로 많은 모임과 교류가 있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과 교류가 활발했으며, 이탈리아 학자가 실제로 외국학회의 모임에 참여하였다.

SIS에 의해 수행된 과학연구는 과학모임이나 라운드테이블, 위원회 및 워크숍 등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정기적인 과학모임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일주제를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었다.

일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The analysis of the state and future of statistics in Italy(Sorrento, 1984)
-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istics and informatics and to the use of database(Sorrento, 1984; Siena, 1988)
- Statistical forecasting (Turin, 1982)
- The Quality of statistical data (Trieste, 1983; Siena,1988)
- The organization of the public statistical service to the statistical cultural training in compulsory school and high school (Salice Terme, 1981)
-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field of technology (Salice Terme, 1981)
- The statistical control of production process (Bari, 1986)

- The evaluation of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Giardini Naxos, 1985)
- The statistical analysis by regional and sub-regional areas (Perugia, 1987)
- Statistics in biomedical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Bari, 1986; Siena, 1988)
- The groups of transformations in statistics (Siena, 1988)
-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atural sciences (Siena, 1988)
방법론과 직결된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었다.
- Variability (Salice Terme, 1981)
- Multivariate analysis and data analysis (Salice Terme, 1981; Siena, 1988)
- Inference (Bari, 1986; Siena 1988)
- Sampling (Sorrento, 1984; Siena 1988)
- Time series (Bari, 1986; Siena 1988)
- Multi-way matrices (Bari, 1986)
인구 및 사회통계분야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Fertility measuring (Bari, 1986)
- The problem of the collection of data and the analysis of the presence of foreigners in Italy (Siena, 1988)
- The structure and cycle of the life of the family (Siena, 1988)
-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ocial policies (Bari, 1986)
- The demographic development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Siena, 1988)
- The stochastic models in social research (Bari, 1986)
통계학-경제학 분야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Statistical analysis in the insurance sector (Trieste, 1983)
- Statistical analysis in the credit and finance field (Siena, 1988)
- The revision and modernization in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s (Sorrento, 1984)
- Index numbers (Sorrento, 1984)
- Problems of the measuring of income and wealth (Bari, 1986)
- The evolution of the Italian production structure (Bari, 1986)
- The measuring of the submerged economy (Siena, 1988)
- Statistical methods for econometrics (Siena, 1988)
- For the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Bari, 1986).
과학위원회는 많은 수의 주제별로 나누어졌다. 주제별로는 the applications of informatics to statistics, the study of times series, the problems of the estimates in national accounting, the quality of statistical data and the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 of data base for statistical purposes 등이 있었다. 각 위원회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 출판하였다.

3.3.3 1988년-1992년

레티(G. Leti)의 회장직은 1988년 4월 29일로 막을 내리고, 제34회 이탈리아통계학회 과학자 모임에서 로마 라스피엔자 대학교(the University of Roma -La Sapienza-) 통계학과의 알베르토 줄리아니(Alberto Zuliani) 교수가 새로운 SIS의 회장으로 선출된다. 로마대학교는 제1로마대학, 제2로마

대학, 제3로마대학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La Sapienza' (<http://www.uniroma1.it/>), Università degli Studi di Roma 'Tor Vergata' (<http://www.uniroma2.it/>),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재임 4년 동안 주리아니 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에 제시했던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많은 회원들과 학회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취임후 첫번째로 추진한 것은 처음 과학자모임을 가진지 50주년 축하행사를 계획한 것이었다. 축하모임은 첫번째 모임을 가졌던 피사에서 “통계와 사회(Statistics and Society)”라는 주제로 열렸다. SIS의 역사가 다루어지고 50년 동안 출간된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 및 공헌논문, 보고서, 모든 연구 결과들의 목록이 출간되었다. 이 목록은 레티(G. Leti)와 갈마치(G. Galmacci)가 편집을 맡았으며, 저자별, 주제별로 정리되었다. 이 목록은 이탈리아 과학자들과 외국의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연구 도구가 되었다.

또한 많은 위원회와 다양한 연구그룹에서 일반 주제 및 특별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좋은 결실들을 맺었다. 먼저 일반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istics and society (citizens, firms, institutions) (Pisa, 1989)
- Between statistics and environment (Padova, 1990)
- Between statistics and the other sciences or disciplines (social sciences, demography, economics, econometrics, medicine, probability) (Padova, 1990; Giardini Naxos, 1991; Pescara, 1992)
- The teaching of statistics at University (Anacapri, 1989)
일부 통계적 방법에 대한 주제는 여러 번 다루어 졌다.
- The different approaches to statistical inference (Padua, 1990; Cagliari, 1991; Pescara, 1992)
- The subjects relative to sampling (Perugia, 1989; Padova, 1990)
- Multivariate analysis (Padova, 1990; Pescara, 1992)
- The analysis of spatial and temporal data (Padova, 1990; Pescara, 1992)
-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Erice, 1988; Pescara, 1992)
1회 모임을 가졌던 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Measurements and scales of measurement (Pescara, 1992)
- Distances in statistics (Pescara, 1992)
- Experimental design (Pescara, 1992)
- Statistical tests and robust methods (Padova, 1990)
- Current censuses and statistics (Padova, 1990)
- The monitoring of rare events (Padova, 1990)
인구통계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General problems of demographic analysis (Padova, 1990)
- The demographic analysis for countries with a statistical shortage (Padova, 1990)
-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and business demography (Pescara, 1992)
경제통계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The control of production processes (Padova, 1990 ; Pescara, 1992)
- On the labour force (Padova, 1990; Pescara, 1992)
- The new methods of measuring economic aggregates (Pescara, 1992)
- On input-output models and simulation procedures (Padova, 1990)

- The analysis of the public deficit (Pescara, 1992)
- The collecting of data on consumption (Pescara, 1992)
- The use of the administrative data base (Padova, 1990)

SIS는 또한 국제수준의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대학 통계인학회 및 폴란드 바르샤바의 통계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통계학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많은 공조의 기회가 있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제통계기구(ISI)의 모임이 있었을 때 SIS는 이집트 통계학회와 같이 환경에 대한 주제로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는 ISI의 국가통계학회 포럼 동안에 모델로 채택되었다.

SIS는 ISTAT, 로마대학 등과 같이 국가통계시스템의 통계인들을 연수시키는 FORMSTAT에 가입했다. 줄리아니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 두개의 새로운 정기 간행물이 출간되었다. 먼저 "SIS-information"은 협회의 뉴스레터이고, "Journal of the Italian Statistical Society"는 영어 논문집으로 이탈리아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탈리아통계학회(SIS)는 특히 젊은 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정기학회 모임 중에 최신 연구 주제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을 열었으며, 이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통계학과 인구통계학 분야에서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상을 제정하였다.

3.3.4 1992년 이후

줄리아니(A.Zuliani)회장의 임기는 1992년 4월 22일로 끝나고 제36회 이탈리아 통계학회의 과학자모임에서 로마 대학교의 통계, 인구통계, 보험과학대학의 통계학 교수인 알프레도 리찌(Alfredo Rizzi)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다. 선거 기간 중에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이탈리아의 과학분야에서 ISI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이탈리아학회의 발전에 공헌하며, 대중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는 학회를 구성한다.
- 2) 통계분야에서 특별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증진하며, 연구진과 모든 통계분야의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 3) 회원들의 연구를 지속 증대 시키고, 중고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연구자와 이탈리아 통계인들이 통계적 방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통계과정을 만든다.
- 4) 이탈리아 과학자 협회 및 국제협회, 외국협회 그리고 특히 동부유럽국가간의 관계를 추진하고 강화한다.
- 5) 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연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문헌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리찌 회장의 프로그램의 첫번째 성과는 1993년 3월 정기학회 모임기간 중에 제출되었다.

2001년 현재 이탈리아 통계학회(SIS)는 베니토 프로시니(Prof. Benito V. Frosini)회장이 이끌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국가통계기구(ISTAT)의 의장은 2001년 6월에 피렌체 대학 통계학과의 루이지 비제리(Luigi Niggeri) 교수가 역임하였다. 이탈리아에서의 통계학의 발전은 그 움직임이 조용한 듯 하면서도 큰 흐름은 지금도 역사의 굴레와 함께 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Parenti G.(1969). Inagural Speech at the XXVI Riunione scientifica della SIS. In : Societa' Italiana di Statistica. *Atti della XXVI Riunione scintilica*, Vol. III.
- [2] Giuseppe Leti(1993). Italian Statistical Society : A Short History, Centro d'informazione e stampa universitaria, University of Rome - La Sapienza-, Rome, Italy
- [3] Gini C. (1920). Programma, *Metron*, Vol. 1, No.1
- [4] ISTAT(2000). Italy's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Introduction Manual (<http://www.istat.it/>)
- [5] ISI -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ttp://www.cbs.nl/isi/>). The ISI Office is located in the building of Statistics Netherlands (CBS), Voorburg, The Netherlands (near The Hague).
- [6] SIS Italian Statistical Society (<http://www.caspar.it/SIS/> (in Italian only))
- [7]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CNR) : It is a public organization of great relevance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of the Country whose original institution goes back to year 1923. (<http://www.cnr.it/>)

부록 : 이탈리아 역사

이탈리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C 736-B.C. 509 : Romulus의 로마창건과 초기의 7왕국 시대(B.C. 8세기경부터 라틴, 사비나 도시 국가를 병합하여 에트루스키 왕조를 포함한 7왕국 시대를 이룸)
- B.B. 509-B.C. 27 : 로마공화정 시대
- B.C. 390년경 : 켈트인 로마공격
- B.C. 27-A.D. 476 : 로마제국시대
- A.D. 395년 : 동서로마제국으로 분리
- A.D. 476년 : 서로마제국멸망
- A.D.800 : 프랑크왕국 칼 대제 황제에 즉위
- A.D. 870 : 프랑크왕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왕국으로 분리
- A.D. 962년 : 신성로마제국 오토 1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됨
- A.D. 1453년 : 동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가 쇠퇴하기 시작
- 1521년-1544년 : 이탈리아 전쟁
- 1559년 : 에스파냐의 이탈리아 지배 확립
- 1714년 : 위트레이트 조약, 오스트리아의 이탈리아 지배
- 1735년 : 에스파냐의 부르봉 가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획득
- 1796년 : 나폴레옹 이탈리아 정복
- 1803년 : 북이탈리아 공화국 성립
- 1814년 : 이탈리아 왕국 붕괴
- 1859년 : 대오스트리아 해방전쟁
- 1870년 : 이탈리아반도 통일

- 1871년 : 로마로 천도
- 1882년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 동맹 성립
- 1911년 : 리비아 전쟁
- 1915년 : 제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함께 동맹국편에 서서 참전
- 1920년 : 무솔리니, 에마누엘 3세에 의해 원수에 임명
- 1928년 : 파시스트당의 1당 지배
- 1936년-1937년 : 나치 독일과 구축국을 결성, 에티오피아 정복
- 1940년-1943년 :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측편에 서서 참전
- 1943년 : 무솔리니, 에마누엘 3세에 의해 투옥되고 연합국측에 항복
- 1946년 : 재헌의회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왕권 정치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
- 1947년 : 공화국 헌법공포와 초기 대통령 DE DICOLA 지명
- 1948년 : 초대의회선거, DE DICOLA 대통령이 속한 기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사민, 자유, 공화당 등과 4당 연정 수립
- 1949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창설멤버로 가입
- 1957년 : 유럽공동체(EC)에 가입, EC 기금과 마샬원조계획에 따라 공업성장
- 1964년 : 기민당 정부 중도좌파의 지지를 받고 사회당과 연립정부 구성
- 1977년 : 공산당, 기민당을 비롯한 5개 정당과 테러대책과 경제재건등에 관한 정책협정 체결
- 1983년 : 크락시에 의한 중도, 좌파의 연립정권 성립
- 1987년 : 크락시 정권 퇴진, 기민당 고리아 내각 발족
- 1992년 5월 : OSCAR LUIGI SCALFARO 대통령의 피선
- 1994년 5월 : 총선에서 기민당이 대패하고 좌, 우익이 연합한 BERLUSCONI 정권 수립
- 1995년 1월 : 무당파 람베르토 디니(LAMBERTO DINI) 수상 집권